산사가 말을 걸어오는 순간, 사진이 되다

유병용 사진전 '절로 절로 저절로'
법련사 불일미술관 5월 10~16일

봉암사 등 풍경사진 100여 점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사진가 유병용이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법련사 (송광사 분원) 불일미술관에서 초대전 '절로 절로 저절로' 를 개최한다.

50여 년 동안 장미, 들꽃, 인물, 도시풍경 등에 집중했던 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그동안 자신이 찾았던 200여 곳의 절 풍경 가운데 100여 점의 사진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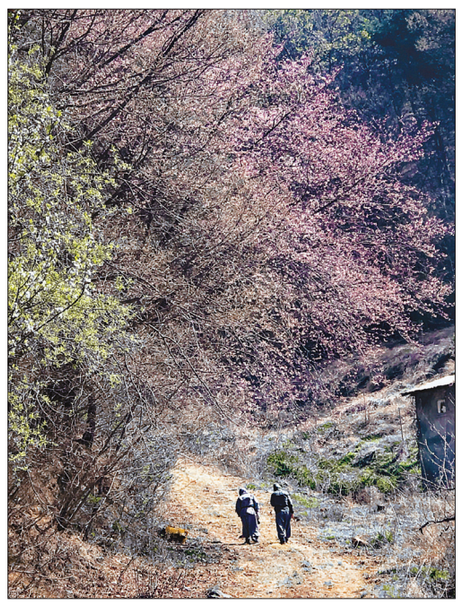
이번 작품은 젖은 땅을 열과 정성으로 말리던 사람들, 처연하게 들리던 처마 끝 풍경소리에 담긴 불자들의 꿈, 결 좋은 바람의 속삭임을 위안의 귓속말로 절절히 풀어 놓은 듯하다. 유 작가는 이런저런 일로 찾았던 절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것 같다고 말한다. 유 작가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큰스님과 차를 마시며 귀한 법문을 듣기도 했고, 속인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스님의 일상을 보기도 했다. 그런 과정에서 카메라에 담았던 사진들이다. 그래서 그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산사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

유 작가는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빛과 사람의 온기로 보듬어지는 절집을 한순간의 예술, 즉 위안의 문신인 감성 언어로 채색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가 박제된 무한의 시간을 인화지에 풀어놓으면 사진 속 마른 잎에는 피가 도는 듯하다. 무심한 구름 몇 조각에도 창포빛 꿈이 담긴다. 회색빛 가슴에 푸른빛이 돈다. 깊고 적막한 산사가 미소 짓는다. 산사를 감도는 바람 한 줄기, 빛의 편린들, 계절의 수런거림이 작품 속에서 말을 걸어오는 듯하다.

유 작가는 "나의 사진은 보기에 편하다. 특별한 기교를 부린 것도 없고 해석이 난해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사진이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진을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그래서 이번 사진전 제목도 편하게 짓고 싶었다.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선생의 '청산(靑山)도 절로 절로 녹수(綠水)도 절로 절로 / 산(山) 절로 물 절로 산수(山水) 간(間)에 나도 절로 / 그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절로' 라는 시구(詩句)가 도움을 주었다. 좋은 사진은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것을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 절 저 절 다니며 마주했던 여러 얘기를 누구라도 쉽고 편하게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은 "몇 년 전 노스님께서 열반하시어 매주 수요일 청도 운문사, 담양 부용암, 안동 봉서사, 당진 안국사, 세종 광덕사 등 이 절 저 절 다니며 칠칠일을 지낼 때 그 큰 카메라를 메시고 모든 과정을 찍으시고 그날그날로 정리하시더니 49재를 지낸 후 두툼한 기록 사진집을 봉정해 주셨다. 이번 전시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니


유병용 作, 서산 간월암.


유병용 作, 예산 묘법사.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낸 한 장의 사진이 시인이 쓴 시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가수가 부르는 노래보다 더 심금을 울려주는 소리를 들려주기도 한다"고 평했다.

시인 김삼환은 '절로 절로 저절로' 사진전을 "절의 일상, 풍경, 도구, 기원, 생사, 계절 등 절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았다. 직접 발품을 팔아야만 하는 노력과 예술가적 앵글의 혼이 잘 혼융된 장기간의 결과물임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언어는 보여지는 대상 뒤에 숨는다. 각자 적당한 위치에서 자신의 눈으로 작품이 가르키는 대상을 바라보면 된다"고 평했다.

유 작가는 현재 마포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는 300여 년 고찰 석불사 종무실장이며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의 유발 상좌로 '웅산' (雄山)이라는 수계명도 받았다. 그는 남도의 작은 포구 법성포에서 태어났다. '성인이 불법을 들여온 성스러운 포구' 라는 뜻의 지명에서 태어났으니 태생적으로 불교와 인연이 깊다. '저절로' 인데 '저절로' 가 아니고 운명적으로 절을 만났다. 1971년 외환은행에 입행해 첫 월급으로 카메라를 구입해 사진을 시작한 이후 2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고 수많은 그룹전에 참가했다. 1988년 1월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40년간 근무한 은행 은퇴 후에도 사진가로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취미로 시작했던 사진을 학문적인 체계를 잡기 위해 은행 재직 시 재능대학교 사진과와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을 졸업했고, 호남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는 등 50여 년 동안 은행원, 사진가, 사진 교육자로 활동해왔다.

1988년 '장미' 전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고 10여 차례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사진집 〈ROSE (1988년)〉 〈들꽃, 그 투명한 향기 (1990년)〉 〈포기해 봐 뭔가 있을 거야 (2006년, 사진예술사)〉 〈Instax_62×99mm (2008년, 사진예술사)〉 〈사진, 말 없는 시(2017년, 사진예술사)〉 〈절로 절로 저절로 (2023년, 하얀나무)〉를 발간했으며, 수필집 〈바보 초상 - 은행원 일지(1991년, 한마음사)〉 등을 출간했다.

사찰 인장으로 살펴보는 불교역사

특별전 '사찰 인장(印章) 새롭게 만나다'
송광사성보박물관 5월 15일~8월 15일

송광사 인장·관련 자료 등 70여 점 전시
사찰 인장에 대한 첫 연구와 전시 의미


송광사 불법승보인.


통도사불종찰원장인.


해인사 불법승보인.


송광사 인주함.

성보 가운데 인장을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송광사성보박물관(관장 고경)이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삼보종찰(三寶宗刹) 소장 인장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통도사 소장 인장과 인장함 등 관련자료 17점과 해인사 소장 인장 및 관련 자료 27점, 송광사 인장 및 관련 자료 30점 등 70여 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이번 인장 특별전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일제강점기의 31본산 본말사제도 시행 전에 이미 수사찰(首寺刹)을 중심으로 한 수말사(首末寺)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대표적인 예로 송광사와 해인사, 통도사에 각 지역의 수사찰임을 증명하는 인장들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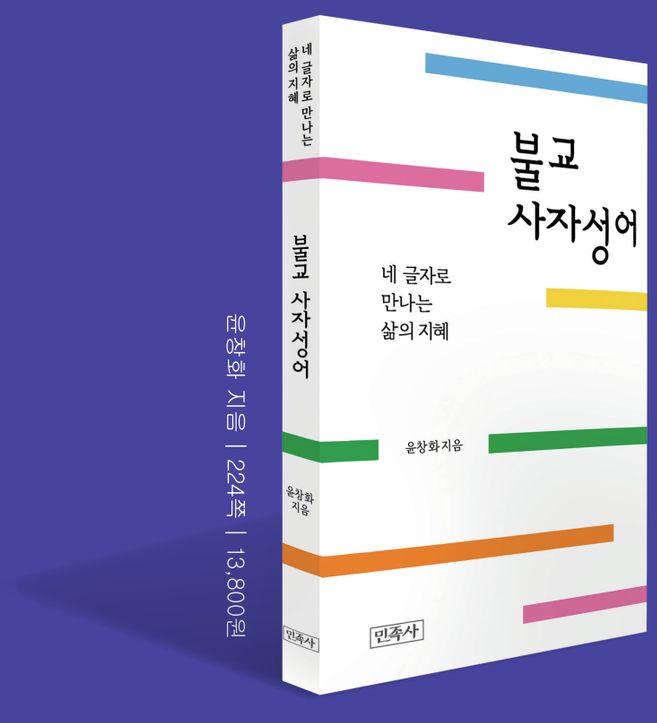
또한 그동안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해인사 '불법승보인(佛法僧寶印)' 이 1457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인사의 삼보인(三寶印)은 인장의 몸통에 해당하는 인신(印身) 윗면에 음각으로 '천순원년팔월(天順元年八月)' 이라 새겨져 있어 1457년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해 2월 세조가 신미(信眉, ?~?)스님 등에게 명해 해인사 대장경의 제3차 인경을 진행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해 6월에 세조가 예조에 명을 내려 "불법승보(佛法僧寶) 4자를 새긴 삼보인(三寶印)을 주조(鑄造)해 지평(砥平)의 용문사(龍門寺)에 보내라"고 했다는 기사가 있어 주목된다. 세조는 6월에는 용문사, 그리고 〈세조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8월에 해인사에 각각 삼보인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용문사는 세조의 비호를 받았던 사찰로 매년 봄가을에 식염(食鹽)을 주기도 했으며, 1456년 즈음에는 수륙사(水陸社)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사찰 인장에 대한 첫 연구와 전시라는 점에서 이번 특별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찰 인장은 단순한 인장이 아니라 당시 사찰의 지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사찰 인장은 개별 사찰에서 사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예조(禮曹)에서 제작돼 각 사찰로 발급됐다. 이는 관인(官印)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용도가 폐지되거나 주지 교체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관아에 반납한 후 다시 받아와 사용했음도 〈인신등록(印信謄錄)〉 등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삼보사찰의 성립과 인식은 당시 불교계 내에서만 통용되던 것이 아니라 조선 사회에 완전히 정착해 나라로부터 공인을 받아 관련 인장을 발부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통도사의 '불종찰원장인(佛宗刹院長印)', 해인사의 '법종찰총섭인(法宗刹摠攝印)', 송광사의 '승종찰원장인(僧宗刹院長印)' 이 그것이다.

사찰 인장에는 보통 4자에서 9자까지 새겨 넣는데 여기에는 각 시기별 사찰 승직(僧職)의 명칭 변화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일례로 송광사의 경우 주지(住持)는 보조국사 때부터 1831년까지 사용되었다가 1832년부터 1902년까지 총섭으로 불렸고, 1903년부터 1904년까지는 '섭리', 1905년부터 1911년까지는 '판사', 이후 오늘날까지 '주지' 로 이어지고 있음을 관련 인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재완 기자

잘난 척 불교 사자성어



윤창화 지음 | 224쪽 | 13,800원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익힌다면 문해력 최고의 지식인!!
글자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불교사자성어 60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성인!

적습성성 (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